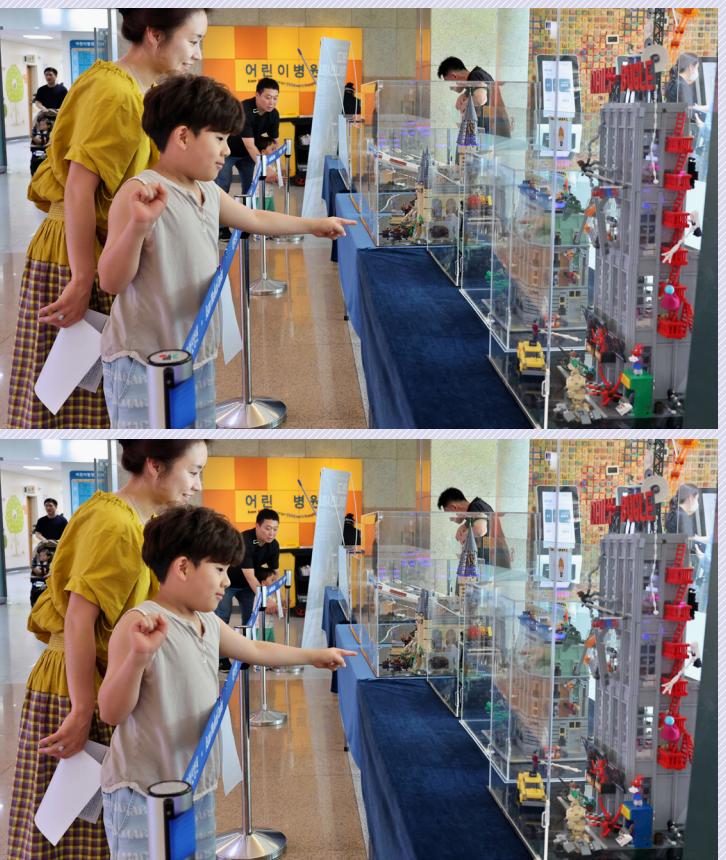


서울아산병원

VOL.727 2024. 6. 15

다른 그림 찾기

다음 그림 중 서로 다른 부분 4군데를 찾아보세요.
정답은 다음 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병원 레고 작품 전시회가 6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 신관 1층 어린이병원 앞에서 진행된다. 이번 전시는 우리 병원에서 오랜 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후원자가 직접 만들어 기부한 레고 작품들로 꾸며졌다. 작품은 전시회가 종료된 후 소장을 희망하는 환아들에게 증정될 예정이다. 사진은 6월 10일 환아와 보호자가 전시를 관람하고 있는 모습.

함께 만드는 뉴스 매거진

이름:
전화번호:

소속:



독자 여러분의 참여가 더욱 알찬 뉴스매거진의 밑바탕이 됩니다.

- 소개하고 싶은 직원
- 특별한 취미를 가진 직원
- 동료와의 협업 사례
- 소개하고 싶은 영화/뮤지컬/책
- 환자와의 감동적인 사연
- 소개하고 싶은 영화/뮤지컬/책
- 우리 부서 소식



가장 좋았던 코너는 무엇인가요? 뉴스매거진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지난호 정답



제725호 병원보에 실린 콘텐츠 중 독자들이 꼽은 가장 좋았던 코너는 '감사우체통 - 선생님과 함께라면 거뜬히 이겨낼 수 있어요'였습니다.

이번 독자엽서는 법무팀 신예빈 사원이 추첨했습니다.

좋은 의견을 담아 독자엽서를 보내주신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3개월 이내에 홍보팀을 방문해 상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독자엽서 보내는 곳

제출 방법 동·서·신관 직원식당 내 배포함

마감 2024년 7월 1일(월)

발표 제729호(2024년 7월 15일 발간)

독자를 위한 선물



원내 식당 10만 원 이용권

김근영(어린이병원간호팀)

캔버스 북커버

강경미(영상의학팀)

원내 식당 5만 원 이용권

김나현(내과간호팀)

민혜원(약제팀)

이다원(외래간호팀)

이미숙(통합돌봄지원팀)

조해정(수술간호팀)

이인경(심장검사팀)

아로마틱 핸드크림

김경애(중앙공급팀)

달마이어 1만 원 이용권

김태인(수술간호팀)

김은아(내과간호1팀 123 유닛)

문희정(외래간호팀)

백설(병리팀)

안수민(류마티스내과)

오철훈(방사성의약품제조소)

3D 완전내시경 심장수술 국내 첫 500례

02 NEWS 3D 완전내시경 심장수술 국내 첫 500례

AMC 리얼스토리 경석 씨는 오늘도 웃어요

06 AMC 리얼스토리 경석 씨는 오늘도 웃어요

10 헬스에디터 냉방병 예방으로 건강한 여름나기

13 감사우체통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믿음



포천린넨센터서 이주민 위한 화합의 장

고국의 전통의상을 차려 입은 이주민들이 설레는 표정으로 포천린넨센터 앞 운동장으로 속속 모여들었다. 우리 병원 자원봉사자들이 환한 웃음으로 이들을 반겼고, 10여 개국에서 온 이주민과 다문화가족 4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훈훈한 축제 한마당이 시작됐다. 우리 병원은 1995년부터 타국살이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무료진료, 건강검진, 건강강좌 등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서로 소통 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해 왔다. 특히 올해는 우리 병원이 지난해 건립한 포천린넨센터에서 행사를 개최해 지역사회 발전과 상생의 의미를 더했다. 사진은 6월 2일 열린 '포천시 이주민 한마당'에서 베트남에서 온 이주민들이 공연을 펼치고 있는 모습. (관련기사 3면)



서울아산병원 뉴스룸
병원 소식을 한눈에

3D 완전내시경 심장수술 국내 첫 500례



유재석 교수

심장혈관흉부외과 유재석 부교수가 최근 국내 최초로 500번째 3D 완전내시경 최소침습 심장수술을 시행했다.

3D 완전내시경 최소침습 심장수술은 갈비뼈 사이를 3~4cm 정도만 절개해 3D 카메라가 달린 내시경을 넣는다. 집도의는 카메라가 전송해주는 3D 화면

을 특수안경으로 보며 수술한다. 신체 내부의 거리감과 두께감을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고, 밝은 화면으로 송출이 가능하다.

유재석 교수는 2017년 국내에서 처음 데모장비로 심장 판막 수술에 3D 내시경을 도입했고, 2018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3D 완전내시경 최소침습 심장수술을 시행해 6년 3개월만에 500례를 달성하게 됐다.

심장이식과 같이 수술 부위가 넓은 경우를 제외하고 판막수

술, 심장 종양수술, 심방증격결손수술, 심방세동수술 등 대부분이 3D 완전내시경 최소침습 심장수술로 가능했다.

3D 완전내시경 최소침습 심장수술의 빈도가 가장 높았던 승모판막성형술의 경우 수술 성공률은 99%로 통상적인 개흉수술과 비슷했다. 가슴뼈를 열고 닫지 않아 수술 마취시간도 30~40분 단축됐다. 환자들의 회복 속도도 확연히 빨라 퇴원 직후 일상생활로 복귀와 여가활동까지 가능했다.

유재석 교수는 “3D 완전내시경 최소침습 심장수술은 투입되는 의료진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3D 카메라가 달린 내시경 한 대만 추가하기 때문에 로봇 심장수술보다 비용이 저렴해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술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유재석 교수는 3D 완전내시경 최소침습 심장수술 500례 달성을 기록과 꾸준한 연구 공로를 인정받아 최소침습 심장수술이 가장 먼저 시작된 유럽을 중심으로 구성된 내시경심장수술전문의클럽의 국내 첫 멤버로 최근 등재됐다.



우리 병원은 지난 1995년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은 남양주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진행된 의료봉사 모습.

‘서울아산병원과 함께하는 포천시 이주민 한마당’이 6월 2일 포천린넨센터 운동장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 10여 개국에서 온 이주민 및 다문화가족 4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각국의 전통춤과 노래를 자랑하는 ‘민속 공

연’, 다른 나라의 전통 음식을 맛보는 ‘다문화 음식 나눔’, 다른 나라 이주민들과 친목을 다지는 ‘놀이마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또한 포천시 지역 주민들도 참여해 이주민들과 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힘을 북돋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우리 병원은 개원 직후부터 저소득층과 새터민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무료진료는 1995년을 시작으로 30년째 이어오고 있다. 특히 지난 2002년 10월부터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마석가구단지에서 근무하는 1천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와 가족들에게 무료 건강검진 등 다양한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필리핀에서 온 마리아 비노 씨는 “고향을 떠나 이국땅에서 생활하면서 힘들고 외로울 때가 많았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 다른 나라의 이주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즐기면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다.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준 서울아산병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크기 작은 위 선종, 가스로 소작해 치료



안지용 교수

위 선종의 병변 크기가 1cm 미만이라면 조직을 떼어내는 시술뿐만 아니라 아르곤 가스로 비정상 조직을 소작시키는 아르곤 플라즈마 응고법 역시 효과적인 치료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는 내

시경 점막 절제술,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 등 내시경 수술이 효과적인 치료법

으로 주목받았지만 합병증 위험이 있어 환자의 상태나 병변에 따라 시행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소화기내과 안지용 교수팀은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 병원에서 저등급 이형성증 위 선종 환자 618명에게 아르곤 플라즈마 응고법을 시행하고 평균 30개월 추적 관찰해 재발률을 분석했다. 그 결과 병변 크기가 1cm 미만의 위 선종은 재발률이 2.6%로 나타나 기존의 내시경 절제술과 차이가 없었다. 반면 병변이 1cm 이상인 경우에는 재발률이 9.5%로 증가해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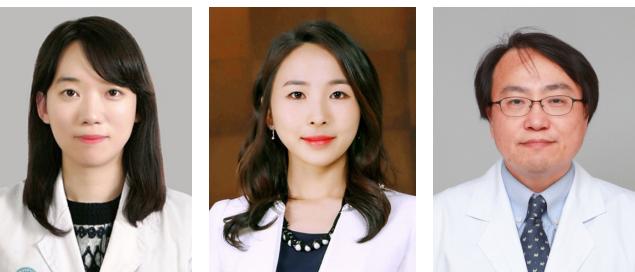
선종의 크기에 따라 신중한 치료방법 결정과 밀접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곤 플라즈마 응고법은 아르곤 가스가 조직에 닿는 순간 전기적 에너지가 전달돼 위장관의 비정상 조직을 소작시켜 치료하는 기술이다. 절개나 절삭 없이 치료가 가능해 출혈 등 합병증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치료법이지만 병변의 깊이 예측이 불가능하고 재발 위험이 높다는 인식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연구로 위 선종의 병변 크기가 작은 경우 아르곤 플라즈마 응고법의 재발률이 낮아 충분히 효과적인 치료법임이 입증됐다.

안지용 교수는 “아르곤 플라즈마 응고법은 내시경 박리술보다 치료 시간이 짧고 출혈 등 합병증 발생 가능성성이 적어, 위험도가 높은 환자에게 저위험, 비침습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미국 소화기내시경학회 학술지 「소화기 내시경」에 최근 게재됐다.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신경교종 진단 정확도 높여



박지은 교수

문혜현 임상전임강사

김남국 교수

영상의학과 박지은 교수·문혜현 임상전임강사, 융합의학과 김남국 교수팀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증강(Generative AI-based Augmentation, GAA)을 이용해 2008년 8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신경교종을 진단받은 환자 565명의 조영증강 T1과 FLAIR MRI 영상을 학습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GAA가 생성한 유사한 신경교종 영상들은 모두 높은 현실성과 다양성을 보였으며, 생성된 영상의 수가 11만 개일 때 IDH 변이 예측력이 최적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팀은 각각 119명, 108명의 자료로 내부, 외부 검증을 진행해 최적화된 GAA 모델의 정확성을 평가했다. 그 결과 정확도는 내부 93.8%, 외부 83.3%로 신경영상 분야 8년차 전문의(내부 86.4%, 외부 81.9%)와 2년차 전문의(내부 79%, 외부 74.3%)가 판독했을 때의 정확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신경종양학 분야 학술지인 「뉴로온 콜로지」에 최근 게재됐다.

CT·MR 검사실 확장 개소



신관 4층에 개소한 CT실에서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신관 4층 CT·MR 검사실이 지난 2개월간 진행된 증설 공사를 마치고 6월 3일 문을 열었다. 이번 증설로 원내에서 운영되는 CT는 기존 21대에서 25대로, MR은 17대에서 19대로 각각 늘어났다.

건강증진센터가 위치한 신관 4층에 CT·MR 검사실이 새로 개소됨으로써 건강검진 고객들의 이동동선이 최소화되고, 검사 대기 일수가 크게 줄어드는 등 환자와 검진 고객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연 캠페인 개최



내원객들이 금연 홍보부스에서 금연 상담을 받고 있다.

금연 캠페인 행사가 5월 31일 열렸다. 이번 행사는 세계보건 기구(WHO)가 지정한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담배와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보안관리팀, 사회복지팀 등 우리 병원 직원봉사단을 비롯해 송파구 보건소, 서울금연지원센터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신관 앞에 마련된 금연 홍보부스에서는 ▲금연 상담 클리닉 ▲금연 퀴즈 및 룰렛 이벤트 등이 진행됐다. 병원 전 구역과 주변 지역을 돌며 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줍는 ▲환경정화 플로깅 ▲흡연 인식개선 순회 캠페인 등도 진행됐다.

이 달의 후원자

개인 및 단체

병원발전(중입자치료기 등)

김진영	10,000,000원
나르지오	100,000,000원
이성자	100,000,000원
장선	100,000,000원
(주)케이엔지니어링	100,000,000원

불우환자 지원

김명자	700,000원
김서연	600,000원
김은현	700,000원

연구

김찬서	500,000원
김찬영	500,000원
어준규	2,000,000원
엄혜진	700,000원

직원 및 직원가족

병원발전(중입자치료기 등)	
최병조	5,000,000원
혜리	50,000,000원
희소	300,000원

- 2024년 5월 31일 기준, 가나다 순

※ 문의 : 대외협력팀 후원유닛 (원내 6207)

동정

박상형 교수 우수구연상



소화기내과 박상형 교수는 6월 14일 중국 시안에서 열린 제12회 아시아 염증성 장질환 정기학술대회(AOCC 2024)에서 우수구연상을 받았다. 박 교수는 '한국인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서 전대장 절제술 후 발생하는 만성 회장낭염의 예후'를 주제로 발표해 이상을 받았다.

김상훈 교수 연구비 지원



간이식·간담도외과 김상훈 교수는 5월 29일 2024년 대한간이식학회 연구비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 김 교수는 '우측 간을 이용한 생체간이식에서 간의 해부학적 구조가 미치는 영향 : 기증자 안전 및 수혜자의 장기 결과'를 주제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조영은 교수, 장화영 임상전임강사 초록상



마취통증의학과 조영은 교수, 장화영 임상전임강사가 6월 8일 개최된 대한소아마취학회 학술대회에서 수상했다. 조 교수는 '정형외과 수술을 받는 소아 환자에서 무통주사의 효과와 부작용을 예측하는 머신러닝 모델에 대한 후향적 연구'를 주제로 최우수 초록상을, 장 임상전임강사는 '포탄 수술 예정 단심실 VS 양심실 완전 교정 수술 예정 비청색증형 단순 심기형: 수술 전 발달 상태에 따른 마취 중 배경 뇌파의 비교'를 주제로 장려 초록상을 받았다.



조영은 교수 장화영 임상전임강사

김명진 임상강사 우수구연상



내분비내과 김명진 임상강사가 5월 2일부터 3일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당뇨병학회 제37차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구연상을 받았다. 김 임상강사는 '예상 포도당 이용률(eGDR)과 무증상 관상동맥 죽상동맥경화증 사이의 연관성'을 주제로 이상을 받았다.

문수빈 주임 우수구연상



감염관리팀 문수빈 주임이 5월 24일 열린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학술대회에서 우수구연상을 수상했다. 문 주임은 '관상동맥우회술 후 수술부위감염 발생 증가에 따른 개선활동 적용 경험'을 주제로 발표해 이상을 받았다.

우수 직장예비군부대 표창

우리 병원 예비군중대가 4월 5일 제56주년 예비군의 날을 맞아 표창을 받았다. 우리 병원은 위국헌신, 책임완수, 상호존중의 가치를 실천하며 방폐부대 예비전력 업무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이상을 받았다.

인사

보직임명

심장혈관흉부외과 부교수 유재석 임 : 심장혈관흉부외과 의국장
- 이상 1명, 2024. 5. 20부.

심장내과 교수 남기병 임 : 디지털심장병원추진단장(연임)
노년내과 임상조교수 정희원 임 : 노년내과 의국장
겸 : ACE팀장
- 이상 2명, 2024. 6. 1부.

신간안내

모든 아이는 예민하다



지은이 : 김효원
가격 : 18,000원
페이지 : 320쪽
펴낸곳 : 글향아리
발행일 : 2024년 6월 3일

정신건강의학과 김효원 교수가 예민하고 불안한 아이의 다양한 유형과 사례를 통해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고 잘 키우는 방법을 안내하는 '모든 아이는 예민하다'를 최근 출간했다. 예민한 기질을 가진 아이들은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애착도 강하다. 이러한 특징은 성장 단계마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아이들은 교우관 계나 학업 등 여러 측면에서 때론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김효원 교수는 예민한 아이들을 1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상세히 소개하고 부모들이 자녀의 예민함을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특히 잘 안 먹는 아이, 손톱 뜯는 아이 등 구체적인 상황에서 부모들이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과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가 예민한 경우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 및 대처법도 함께 소개한다.

경석 씨는 오늘도 웃어요

“신장은 아직 받은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수술 받고 이렇게 생생한데 기증해 준 아버지는 아직 힘들어하세요. 미안해 죽겠어요” 경석(여, 34) 씨는 아픔 만 일절 모르는 사람처럼 밝았다. 아버지와의 격이 없는 표현에서 살가운 관계를 그려보는 사이, 경석 씨는 괜히 시리고 아픈 성장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잘 웃는 사람으로 눈가에 더 많은 주름이 깊어 자리 잡는 것처럼 말이다.

“아빠 어디 가?” 1998년 12월 진눈깨비가 훌날리던 날, 경석 씨의 아버지는 선교를 위해 아르헨티나로 떠났다.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경석 씨는 하교 후에 아버지의 빈 자리를 깨닫고 며칠을 울었다. 할머니와 단둘이 남은 집에는 적막감이 흘렀다. 3년 뒤 아버지를 만나러 갔을 땐 새엄마와 이복동생, 낯선 언어가 기다렸다. 아버지는 평일이면 새벽부터 밤까지 돈을 버느라, 주말이면 교회 일로 함께할 시간이 늘 부족했다. 나중에야 안 사실이지만 당시 아버지는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 죽을 뻔한 위기도 넘기며 가족과 선교를 위한 전쟁을 치르는 중이었다. 청소년기에 막 접어든 경석 씨 역시 계속되는 목마름과 빈혈, 체중 저하로 몇 번씩이나 쓰러질 뻔한 위기를 겪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에 간 지 2년 만에 소아당뇨를 진단 받았다. 하루 4번 인슐린을 맞으며 식단 관리를 철저히 해도 언제나 지는 싸움인 것만 같았다. 시간이 흘러 대학을 졸업한 경석 씨는 한국에 여행을 왔다가 고향인 거제도에 정착했다. 타향살이의 긴장감 없이 평범한 직장인으로 지내는 생활이 꽤 만족스러웠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눈앞에 검은 점이 아른댔다. 시력도 급격히 떨어졌다. 당뇨 합병증으로 망막이 손상되는 당뇨망막병증이었다. 병원에선 신장도 문제지만 자가면역질환으로 췌장 기능이 완전히 망가져 이식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일을 그만두고 1년 11개월간 췌장 이식을 기다렸다. 부산의 한 병원에서 이식을 받은 후에는 거부 반응으로 식욕 부진과 장염 증상에 시달렸다. 서서히 나아졌다 해도 완전한 컨디션은 돌아오지 않았다. 급기야 2021년 코로나에 걸리면서 신장까지 완전히 망가졌다. ‘어떡하지?’ 앞이 깁깝했다. 그때 떠오른 사람이 아버지였다. 경석 씨의 갑작스러운 전화에 아버지는 침착하게 딸을 안심시켰다. “경석아, 아무 걱정하지 마. 내 신장을 줄게.”

잡힐 듯 잡히지 않는 희망 아버지가 급히 한국에 와서 신장 기증을 위한 각종 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경석 씨의 B형 항체 과다로 이식은 불가능했다. 아무런 소득 없이 아버지는 아르헨티나로 돌아가야 했고 경석 씨는 피하고 싶던 투석을 시작했다. 하루 걸려 투석 받는 생활은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상태의 연속이었다. 그래도 방법이 있을 거라는 희망만은 버리지 않았다. 2022년 말 아버지가 잠시 한국에 올 기회가 생기면서 경석 씨는 서울아산병원에 급히 예약을 잡았다. ‘여기서도 안되면 방법이 없는 거겠지.’ 거제도에서 멀게만 느껴졌던 서울로 향하며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 신·췌장이식외과 신성 교수는 수술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번 해보자고 했다. 장기이식센터에선 그보다 훨씬 높은 수치의 환자도 회

복된 사례가 있다며 긍정적인 힌트를 주었다. ‘그래, 서울아산병원이 못할 리가 없어. 교수님이 최악의 상황부터 들려준 걸 거야.’

2024년 1월 10일. 수술일이 잡혔다. 그런데 수술 전 검사에서 가슴에 비정상 세포를 발견했다. 신장 이식이 또다시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암이 아니기만 바라면 제거 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암은 아니었지만 계속된 혈장교환술에도 항체 수치가 떨어지지 않아 수술 일정은 계속 연기됐다. 2월 10일. 수술이 진행되기 전날까지 아무도 수술 여부를 확신하지 못했다.



뒤늦게 알게 된 외로움

경석 씨가 신장

이식 국가승인절차를 밟기 위해 사회복지팀 박종란 의료사회복지사와 만났을 때다. 그동안의 병력과 가족 관계, 자라온 환경 등을 이야기하자 경제적 어려움을 먼저 살펴 주었다. 그리곤 병원 직원들이 모은 기부금으로 경석 씨와 아버지의 수술비를 도울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병원에서 저를 돋는다고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요?” “그건 경석 님이 열심히 살아오셨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복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수술을 잘 한다기에 찾아온 병원에서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가 없도록 애쓰고 있었다. 회진 때 만난 신성 교수는 잘 치료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며 용기를 주었다. 늘 혼자였던 경석 씨 곁에 누군가의 기도와 경제적 지원, 그리고 가족이 있었다. “고통도 만성이 됐는지 나는 늘 아프게 살아야 하는 건가 보다. 내가 힘든 만큼 다른 사람은 다르게 힘들겠지… 하면서 지냈어요. 되돌아보니 참 많이 아팠는데 혼자서 애써 참았구나 싶어요. 조금 외로웠거든요.”

술술 풀리는 인생

이식 후 경석 씨는 소변도 잘 보고 컨디션도 금방 회복됐다. 수술 전만 해도 췌장을 이식받을 때의 트라우마가 떠올라 떨고 있는 경석 씨에게 “잘 끝날 거야. 수술이 잘못되더라도 천국에 가면 되지!”라며 밝게 응원하던 아버지가 되려 회복까지 시간이 걸렸다. 아픈 배를 쥐고서 “내 딸 장하다”라고 읊조리는 아버지를 놀리던 경석 씨는 평생 그리워했던 아버지의 사랑이 실은 부족했던 게 아니라 잘 몰랐던 것뿐이란 걸 알게 됐다. 할머니와 고모들이 품어온 ‘딸을 맡기고 멀리 떠난 장남’이라는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도 신장 이식을 계기로 셧겨 내렸다. 경석 씨는 질병이 꼭 인생의 최초만은 아니더라고 말했다. “모든 문제는 포기하지만 않으면 해결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런 날도 온 거고요. 이제 스페인어 선생님이자 이준호 씨의 건강한 딸로 다시 시작할 거예요. 자신 있어요!”

● Storytelling Writer 흥누리

※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질병이 삶을 짓누를 때 기꺼이 희망과 위로의 동행자가 되어준 서울아산병원. ‘AMC 리얼스토리’ 코너는 험난한 치료 과정을 이겨내고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만난 사람들과 우리 병원 의료진의 진솔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최선의 치료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과 협업 놀라워”

쿠웨이트에서 온 주드 압둘라힘 임상강사



주드 압둘라힘 임상강사는 쿠웨이트 남부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병원인 알아단 병원에서 급성 외상 및 중환자 수술을 담당하는 일반외과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0월부터는 우리 병원 위장관외과에서 유문원 교수의 지도를 받고 있다. 주드 압둘라힘 임상강사를 만나 우리 병원에서의 연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실>

서울아산병원으로 연수를 온 이유는

쿠웨이트에서 함께 일한 동료들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성형외과 등에서 교육을 받고 돌아온 동료들은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최고 수준의 의료 기술과 지식을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외과의사로서 더욱 성장하고 싶었기 때문에 다양한 기술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연수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연수 소감은

비만대사수술, 위암수술, 위·식도역류질환수술, 위장관질환수술 등에 참여하며 최신 술기를 직접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서울아산병원은 규모가 큰 만큼 환자 사례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매일 새로운 경험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지도교수님인 위장관외과 유문원 교수님을 비롯해 김범수, 민사홍, 고창석, 공충식 교수님 등 많은 분들이 연수 과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아산병원에서 인상깊었던 점은



위장관질환수술 관련 회의에서 동료 해외의학자들과 함께. 가운데가 주드 압둘라힘 임상강사.
2022 대한외과학회 학술대회에 참여한 주드 압둘라힘 임상강사(왼쪽).

한국에서의 생활은 어떤지

쿠웨이트와 한국의 문화는 생각보다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어르신에 대한 공경, 가족에 대한 특별한 사랑, 일에 대한 열정 등이 그렇습니다. 물론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어려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특히 서울아산병원 직원들은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누구보다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항상 미소를 띠고 환자를 친절하게 대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 정말 기쁘고 언젠가 함께 일한 동료들을 쿠웨이트로 초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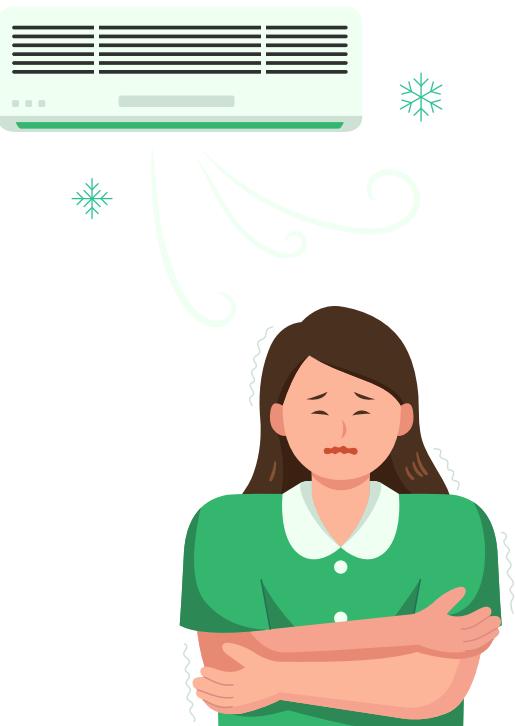
민사홍 교수(가운데)를 비롯한 위장관외과 동료들과 저녁식사. 오른쪽 첫 번째가 주드 압둘라힘 임상강사.
유문원 교수(오른쪽)가 주드 압둘라힘 임상강사에게 수술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웰컴 투 AMC’는 우리 병원을 찾은 해외의학자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냉방병 예방으로 건강한 여름나기



가정의학과 이정아 부교수



지나친 냉방은 득보다 실

'냉방병'은 우리가 일상 생활이나 언론에서 흔히 사용하지만 정식 의학 용어로 사용되는 질병명은 아니다. 단어 그대로 더운 여름철을 나기 위해 실내에 들어 놓은 냉방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이며 두통, 근육통, 권태감, 소화불량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인다. 냉방병은 실내와 외부 온도 차가 크고 실내 습도가 낮을 때 잘 발생한다. 원래 우리 몸은 온도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어서 겨울엔 추위에, 여름엔 더운 기온에 맞춰 지낼 수 있다. 하지만 실내·외 온도차가 5°C 이상 되는 경우에는 자율신경계가 바뀐 기온에 순응하기 어려워 냉방병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바깥 기온은 높은데 지나치게 낮은 온도의 실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기온 차이에 적응하지 못해 병이 나는 것이다. 또한 냉방기를 계속 가동하게 되면 실내 습도를 낮춰 호흡기 점막 건조를 유발하고 기침 등을 동반한 감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드물기는 하지만,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되어 냉방병 증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대형 건물용 냉방기에 사용되는 냉각수에서 잘 번식하는 레지오넬라균은 냉방기가 가동될 때 공기 중으로 분출되어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레지오넬라균에 의한 감염은 감기와 유사한 열감, 두통, 설사, 근육통 등의 증상을 보인다. 특히 면역기능이 약한 노인이나 만성질환자는 더 쉽게 감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냉방병 없이 한여름을 나는 법

냉방병 없이 건강하게 여름을 나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는 것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실내와 외부의 온도차가 5°C를 넘어가면 우리 몸은 변화한 온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여름철 적정 실내온도인 24~27°C를 준수하며 외부 기온에 맞게 실내 온도를 조절

해 그 차이를 줄여 주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주기적인 환기다. 냉방기를 가동해 선선해진 실내 온도 유지를 위해 하루 종일 창문을 닫아두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하면 실내의 여러 유해물질이 내부에 지속적으로 쌓이게 된다. 가구나 카페트, 건물을 자을 때 사용된 페인트나 접착제, 복사기나 전자제품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화학성분들이 외부로 나가지 못하고 내부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이다. 좀 덥더라도 규칙적으로 창문을 열어 자연환기를 해야 한다. 만약 고층빌딩이나 창문을 열 수 없는 환경이라면 중앙환기시스템을 적절히 가동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적정 습도 유지를 위해서도 환기는 필수다. 냉방기를 한 시간 정도 가동하면 습도가 30~40%까지 내려가므로 적정 실내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를 해주자. 냉방기를 청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폐렴 등을 유발하는 레지오넬라균 예방을 위해 냉방기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해가 바뀐 후에 냉방기를 처음 다시 켜기 전에는 반드시 청소를 해주어야 하며 세균이나 곰팡이가 서식하기 쉬운 내부필터는 최소 2주에 한 번씩은 청소해 주는 것을 권한다. 덥다고 찬 음식이나 차가운 음료를 너무 자주 섭취하는 것도 냉방병에 걸리기 쉬운 몸 상태를 만들수 있으며 이미 냉방병에 걸린 경우라면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 자제해야 한다. 반면 충분한 수분 섭취는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되므로 냉방이 가동 중인 실내에서 오랜 시간 근무해야 한다면 따뜻한 음료를 자주 마셔 수분을 보충해 주고 얇은 긴 팔옷을 입는 등 몸을 따뜻하게 유지시켜 주는 것이 좋다. 끝으로 모든 질병의 예방법이기도 한 꾸준한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을 권하고 싶다.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과로나 수면부족을 피하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을 하며 체력을 관리한다면 냉방병으로 인해 고생할 확률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냉방병의 치료와 주의할 점

일단 냉방병 증상이 있다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며 휴식을 취해야 한다. 여기에 실내 온도를 높여 냉방 환경을 개선하면 대부분의 냉방병 증상은 금방 호전된다. 만약 냉방병 증상이 심하다면 각각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약물로 치료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약물로 인한 증상 완화는 일시적인 것일 뿐 근본 원인인 냉방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38°C 이상 고열, 지속적인 기침, 심한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혹시 다른 질병으로 인해 몸이 아픈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 냉방병은 질병에 해당되지는 않고 대부분 경미한 경우가 많다. 심한 통증이나 고열 등 증상이 나타난다면 냉방병 증상과 유사한 다른 질병이 원인은 아닌지 확인 후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앞으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고 냉방기도 더 가동될 것이다. 업무로 바쁘고 시간도 부족하겠지만 짬을 내어 밀폐된 건물을 벗어나 바깥 공기를 한번씩 쐬는 것은 어떨까? 생각보다 건강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너무 차가운 음료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여기에 꾸준한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 패턴 유지로 체력을 관리하며 건강한 여름을 나길 바란다.

“언제나 제 뜻을 다하는 노무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맡고 있는 업무는 노사협력팀에서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운영 지원, 노무 자문 등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학을 공부하며 가장 흥미를 느낀 인사노무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고 싶어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시대에 따라 점점 복잡해지는 노무 현안과 노사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사협력팀 고대균 사원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노무 자문을 의뢰받아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법률적 해석, 쟁점 검토 등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병원의 정책과 당면한 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점을 개선해 나가야 할지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으로 미력하나마 우리 병원의 정책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도움을 보탤 수 있어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노사협의회 일정이 갑자기 바뀌어 회의실 예약도 급히 변경해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가 이미 예약한 상황이어서 담당자께 양해를 구하고 장소를 바꿔주실 수 있는지 부탁드렸습니다. 사정을 이해하고 예약 장소를 변경해 주신 덕분에 회의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신입직원인 제가 힘들어하지 않고 병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퇴근 후 일상은 약속이 없는 날에는 퇴근 후 집에서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면서 혼자 쉬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운동을 좋아해서 바깥공기를 만끽하며 러닝을 하거나 풋살, 수영, 헬스 등 여러 운동을 하곤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잠시 미뤄둔 피아노, 기타 등 악기 레슨도 다시 받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와 꿈은 우리 병원의 협력적 노사관계가 잘 정착돼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병원이 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실무 경험을 쌓고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동대학원 진학 등 학문적 탐구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병원의 ‘전천후 노무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믿음

저는 백혈병 환자입니다. 골수이식을 받은 뒤에도 병이 재발해 계속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인생 첫 항암치료를 시작했을 때, 치료 결과가 좋지 않아 항암제를 변경해야 했을 때, 그리고 골수이식 후에 병이 재발했을 때, 모두 우지민 선생님을 만나 치료 교육과 상담을 받았습니다. 치료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의 의지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가짐으로 생활하려고 노력해 왔지만 치료 결과가 좋지 않고 병이 재발했을 땐 우울감이 물밀듯 몰려왔죠. 속상한 마음을 티 내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었는데 그런 저 마음을 선생님은 다 이해하고 계신 듯 밝은 웃음과 힘찬 목소리로 항상 격려해 주셨어요. 같은 병실에서 생활한 항암 환자들 중 우지민 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는 분들 모두 저와 같은 마음으로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환자를 위한 선생님의 진심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환자들은 큰 위로를 받았고 다시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나를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느낄 수 있게 해 주신 우지민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저는 혈액내과 전문간호사로 혈액암 환자의 항암 치료 교육 및 상담을 맡고 있습니다. 혈액암 환자들은 길고 힘든 치료 과정을 겪으면서 우울, 불안, 무기력감을 많이 느낍니다. 환자 곁에 있다 보면 힘에 부칠 때도 있지만 ‘환자가 무엇을 가장 힘들어하고 있을까’ ‘어떻게 하면 환자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의 끈을 놓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혈병이 재발해 많이 불안해하는 점은 환자분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다’는 긍정의 힘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환자분에게 힘이 되었다니 감사한 마음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치료 과정도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옆에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 암병원간호1팀 우지민 차장

하늘을 나는 조종사



어린이병원간호팀 배형규 사원



경비행기 조종사에 대해 소개해 달라

최대 이륙중량 600kg 이하의 2인석 단발 엔진의 항공기를 조종·무선 교신·항법 기술로 이뤄진 비행계획에 따라 조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는 전국에 있는 경량 항공기 비행학교 중 화성에 위치한 국토부 지정 전문 비행교육 기관에서 경량 항공기 조종사 자격증(취미, 레저용)을 취득했습니다.

경비행기를 타게 된 계기는

어릴 적부터 다양한 기종의 항공기 모형을 수집해 집에 전시해 놓을 만큼 항공기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휴일이면 캠핑의자를 들고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으로 가서 활주로가 잘 보이는 언덕에 올랐습니다. 주로 비행기 이착륙하는 모습을 즐겨보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가슴이 설레어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고놈 참 낮에 봐도 멋지고 밤에 봐도 멋지네~’. 항공기의 매력에 푹 빠져 지내면서 직접 조종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지난 2020년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과 좋은 점은

착륙하는 방법을 배울 때 가장 힘들었습니다. 착륙할 때 엔진 동력과 속도를 줄이면서 활주로에 접근해야 하는데, 겨울이 되면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활주로에서 멀어지거나 원하는 곳에 접지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항공기와 바람의 관계를 이해하고 익히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비행 금지구역만 피하면 제가 원하는 곳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고 무엇보다 하늘과 바다, 끝없이 펼쳐진 지평선을 실컷 볼 수 있다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하늘에서 풍경을 마음껏 감상할 때 큰 기쁨과 자유를 느낍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보다 더 높은 단계의 자격증에도 도전해서 경량 항공기로 갈 수 있는 곳보다 더 멀리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가 보고 싶습니다. 조종을 배우기까지 여러 갈등과 고민, 어려움이 있었지만 막상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하늘에 오르니 비행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순간에도 꿈을 향해 날아오르는 모든 분들을 열렬히 응원합니다. 모두가 자신만의 하늘을 품고 즐겁게 비행하시길 바랍니다! “Have a safe flight.”



독자의 소리

뉴스매거진에 대한 감상, 동료 직원에 대한 칭찬, 신입직원 소개 등 직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독자엽서를 통해 편집실로 전달됩니다.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독자들의 목소리 일부를 소개합니다. 선정된 직원에게는 달마이어 이용권을 드립니다.



외과간호2팀 전숙현 선임기능

‘컬처 & 라이프 - 나만의 마라톤을 이어갑니다’를 읽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동료와 환자로부터 받은 위로가 다시 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말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암이라는 힘든 역경을 이겨내고 나만의 마라톤을 이어가고 있는 김진영 선생님께 응원을 보냅니다.

어린이병원간호팀 김근영 대리

‘AMC광장 - 임상시험으로 중증 난치성 환자에게 희망을’ 코너를 잘 읽었습니다. 제 어머니도 10년 동안 두 번의 암 수술을 받고 방사선치료와 항암치료를 받으셨습니다. 더 이상 쓸 약이 없어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임상시험약을 접하고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임상시험이 더 활발하게 진행되어 많은 환자들이 새 희망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외래간호팀 정진숙 대리

‘선생님과 함께라면 거뜬히 이겨낼 수 있어요’라는 감사우체통 코너의 제목부터 큰 힐링이 되었습니다. 항상 밝은 표정으로 환자를 대하는 박다영 선생님이 대단합니다. 우리 병원의 든든한 힘은 직원들 한 명 한 명의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냅시다!

암병원간호2팀 김자연 과장

‘사람&이야기 - 조혈모세포 기증, 고귀한 나눔’ 코너가 감동적이었습니다. 두려움과 번거로움을 감내하고 기꺼이 기증한 송재민 선생님뿐 아니라 업무를 배려해 준 동료들도 가치 있는 나눔에 함께한 것 같습니다. 같은 아산인으로서 모두 자랑스러워요.

SNS 돌보기

[건강플러스] 소아기 특발성 대퇴골두 무혈성 고사 (LCP)



출연: 정형외과 강승철 부교수



른 시기에 퇴행성관절염이 생기는 등 소아 고관절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건강플러스에서 LCP병의 증상과 치료, 예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암행의사] 암에 걸려도 아이를 가지 수 있나요?



출연: 산부인과 이사라 교수



최근 젊은 암 환자가 늘면서 향후 2세 계획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암 환자의 임신은 언제부터 가능하고 임신과 출산, 암 치료를 어떻게 병행할 수 있을까요? 암 종별 자연임신 가능 여부와 임신 중에 받을 수 있는 암 검진을 알아보고, 각종 주의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산부인과 이사라 교수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2세 계획, 포기하지 마세요!”

검진을 알아보고, 각종 주의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산부인과 이사라 교수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2세 계획, 포기하지 마세요!”